**＜5번째 이야기＞ 구원의 은혜**

◆**대표자가 기도**

◆**나눔**

구원을 받은 후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특별히 조심하고 있는 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5:1-2

◆**말씀 알기**

영혼의 구원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죽었던 자녀가 살아난 것으로, 잃었던 자녀를 되찾은 것으로 여기십니다(눅 15:24). 이번 과에서는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또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며 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원의 과정**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와 이에 대한 ‘사람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구원의 과정과 관련하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요 16:8). 더불어 성령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고전 2:10∼12).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엡 1:17∼18).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실 때 사람은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듯이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자각과 후회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악 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전인격을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롬 10:9∼10).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응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서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값지고 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2. 구원의 결과**
구원의 은혜는 그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고 천국에 이르는 복을 받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 혼 육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혼은 왜곡되었고 영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사함 받고 영혼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또한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타락한 아담에게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으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그의 인생은 고생의 연속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창 3:17∼19). 이는 아담에게 내린 환경의 저주였으며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도 이 저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사람은 환경의 저주에서 놓여나게 되었습니다(고후 8:9; 갈 3:13∼14).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롬 8:28).

 구원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그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19). 이는 아담이 질병을 앓을 것이며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죽음과 질병의 저주는 온 인류에게 미쳤고 이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사람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질병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벧전 2:24; 롬 6:9).

**3. 중생, 성화, 영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를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요 1:12; 롬 8:17). 그러나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셨지만 아직은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엡 4:22∼24; 고전 3:16∼17). 이처럼 일생 동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좇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생하여 일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고전 15:51∼54; 살전 4:13∼17).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위와 같은 구원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죄와 싸워 이겨 ‘성화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영화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 및 중보기도**

1.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식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2.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3.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기도합시다.

4.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의 내용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역예배공과에서 발췌, 추가, 재구성한 것입니다.